

고용실태조사를 통한 무역인력양성방안
- 인천지역 무역관련업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of the trade
through the Survey of Employment
- Focus in Trade-Related Companies in Incheon -

라공우·Kong Woo La

본고에서는 주로 무역인력양성과 관련된 연구와 인천지역 무역업체를 표본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무역인력과 무역관련 교과목의 교육과정을 재설계를 한다는데 주안점을 주었다. 이를 통해 무역관련업의 맞춤형 인력양성의 기본방향은 “교육과정 이수 = 취업”이라는 구조식이어야 하며, 이러한 구조식하에 지역의 실업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각종 협회의 연간 고용수요를 추정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한다면 협회와의 맞춤형 교육과정으로서 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에서 무역인력 양성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체계 수립은 물론 대학구성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구성원(무역학과 교수 중심)이 산업계의 요구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의 수립을 통해 보다 능동적인 대학 교과과정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핵심주제어: 무역인력, 무역인력양성, 고용실태조사

라공우 | 경인여자대학 무역학과 부교수(lakongwo@hanmail.net)

Abstract

Trade and industry demand for workforce training in order to meet the established educational system and universities must be sustained efforts of the members.

Analysis of the needs of member universities and industry, which is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an educational process more active through university courses should be operated.

Keywords : Trade Workers, Training of Trade Worker, Employment Survey

Kong Woo La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ommerce and Trade, Kyungin Women's College

I. 서론

한 국경제는 1960년대에 열악한 경제 환경과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경제 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했다. 자연자원이 부족한 한국경제에 있어 경제 개발은 무역의 중요성이 매우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도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과 사회적 요구를 이해하고 무역전문 인력양성하기 위하여 1952년 부산대학교와 전남대학교에서 무역학과를 설치한 이후 1970년대에 들어와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동 학과를 설치하게 되었다(김원배 1999).

그러나 무역학과는 학부제를 거치면서 2000년 초반부터 대학에서 다른 학과명칭이나 학과의 폐지 등으로 학문적 영역에 도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것은 입학자원감소와 실용학문위주의 편제정원의 타 학과 전환 등이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무역은 규모면에서 보면 1960년 수출은 3천2백8십2만7천달러이고 수입은 3억3천3백5십2만7천달러로 3억1천7십만달러의 무역적자를 나타내던 한국경제가 43년 후인 2010년에는 수출 4,663억 8,400만 달러, 수입 4,252억 1,217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약 41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규모면에서는 1,000% 이상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이처럼 무역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엄청나게 많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

처럼 무역인력양성은 매우 중요한 분야이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2008)에 의하면 무역인력의 수급전망을 2014년에 약 4,800여명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우선 무역직종의 분류, 무역인력양성의 선행연구 검토, 무역 인력양성 현황 등을 기존의 문헌이나 논문을 참조하여 조사하고, 기업이 원하는 무역인력의 요구수준은 어떠한지를 실태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무역인력양성의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각종 논문과 자료를 검토하고 무역인력양성기관의 프로그램 등을 조사하고 무역 전문 인력의 수요자인 기업 입장에서 구체적인 현황을 분석한다. 무역 전문 인력에 대한 기대요인을 분석하고 추가로 무역 전문 인력에 대한 애로요인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며, 고용창출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II. 무역인력양성 관련 선행연구 및 수급현황전망

1. 무역관련 직종의 분류

무역과 관련 있는 직업의 범위는 상당히 폭 넓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무역관련업의 종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무역관련직업 및 산업을 추출·분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역과 관련 있는 사회진

출분야는 통상 두 가지 측면으로 대별될 수 있다. 그것은 직업분류측면에서의 관련분야와 산업분류측면에서의 관련분야이다. 그러나 직업분류와 산업분류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되어 있다. 즉 각 직업은 산업별로 분류되어질 수 있으며 동시에 각 산업에는 여러 가지 직업이 있다.

2. 선행연구의 검토

WTO와 FTA의 확산으로 대변되는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적합한 전문무역인력양성을 위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인력양성 방안 측면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는 윤충원(2004)의 무역전문인력 양성에 있어 대학이 안고 있는 현실적 문제 진단과 해결 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있으며, 박광서와 유광현(2008)의 국제무역환경변화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위한 합리적 무역학 교과과정 개정방향을 제기한 연구가 있다.

또한 글로벌화에 따른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무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문화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한 조현수와 김기홍(2009), 대학에서 산업계에서 원하는 선진형 무역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 가능한 방안을 제시한 한은식과 박광서(2010) 등의 연구가 있다.

이러한 전문무역인력 양성방안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1> 무역관련 직종 분류

직군명	직렬명	직종명	직업명
사무실 관련 직군	사무원 감독직렬	사무원감독직종	수출사무관리자
	경리·출납 및 관련 직업	경리 및 출납직종	내국신용장사무원, 수출금융사무원,외화출납원
		달리분류되지 않은 경리·출납 및 관련 직종	관세환급사무원, 금융기관서류사무원, 내고(nego)사무원, 무역외지급인증사무원, 수입업무사무원, 수출관리사무원, 수출금융사무원, 수출사무원, 외화금융사무원, 코레스사무원(외국환계정사무원)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무 및 관련 직렬	물품관리직종	보세창고관리자, 하역관리원
		자재계획 및 생산계획 사무직종	소요량사무원, 자재수급사무원, 자재수불원
		문서 및 보고 사무 직종	관세사무원, 무환(無換)수입통관원, 보세화물사무원, 수입재통관사무원, 수입화물운송사무원, 수출기획원, 수출사무원, 수출서류처리사무원, 수출이행보고원, 수출입승인사무원, 수출재통관사무원, 수출화물운송사무원, 시설재수입사무원, 신용장사무업, 외자도입사무원, 외환기획사무원, 정책반영사무원, 통과화물사무원, 통관사무원, 화물운송장인도사무원
판매종사직군	도·소매자영 직렬	도·소매자영직종	무역업자(오퍼상인, 수출업자, 수입업자)
	기술판매·판매외주·제조업체 판매대행직렬	기술판매·서비스 지도직종	항공기기기술판매원
		판매외주·제조업체·판매대리인직종	수입판매대리인, 수출판매대리인, 해외주재판촉원
	보험·부동산·증권·기업·서비스판매·경매직렬	보험·부동산·증권 거래 직종	
			해외증권영업계원

자료: 노동부

참고: 사무 및 유사직, 전문 및 유사직에 해당하는 직업은 여러산업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직종이 광범위하고 교차산업적 특성을 가진 사무 및 유사직과 전문 및 유사직을 교차산업이라 한다.

<표 2> 무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선행연구 검토

	논문제목	주요연구내용 및 방법
주요 선행 연구	·윤충원 ·무역학회지, 제29권 제3호, 2004. 6. ·무역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한 대학교육의 문제점 대처방안	·무역전문인력 양성에 있어 대학이 안고 있는 현실적 문제 진단과 해결 방안 제시
	·박광서·유광현 ·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37권, 2008. 2. ·글로벌 무역인력양성을 위한 합리적인 무역학 교과과정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국제무역환경변화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위한 합리적 무역학 교과과정 개정방향 제시
	·조현수·김기홍 ·e-비즈니스연구 제10권 제2호, 2009. 6. ·글로벌 무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무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시

	·한은식·박광서 ·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47권, 2010, 8.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대학의 선진형 무역전문인력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대학에서 산업계에서 원하는 선진형 무역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본 연구	·무역인력양성을 위한 고용실태분석	·인천지역 무역관련 업체(무역 및 제조업, 관세법인, 물류회사)등의 고용실태조사를 통한 전문인력양성 방안 제시

자료: 라공우(2011), “무역학교육과정과 학문분류의 재정립을 위한 연구,” 「한국무역학회지」, 36(1), 251-252.

3. 무역인력의 수급현황 및 전망

무역전문인력 수급현황의 파악은 단순히 현시점에서 무역인력의 현황파악 뿐 아니라 무역인력의 실수요자로서 기업이 어떠한 무역인력이 필요한지 나아가 향후 인력양성의 방향을 제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또한 무역전문 인력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무역전문 인력양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오원석, 양정호와 박세훈 2009).

무역전문 인력의 양적 수급현황은 교역량의 지속적 증가, 경상계열의 입학생과 졸업생의 수, 무역관련 기업의 취업률 등을 고려하여 연평균 수요·공급을 도출한 2008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보고서 “무역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표 3>과 같이 2014년 이후 약 4,793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향후 무역전문인력의 연평균 수급 추정

구분	2010년	2013년까지	2014년 이후
공급	22,652명	21,484명	20,644명
수요	25,023명	24,620명	25,437명
공급 부족	2,370명	3,135명	4,793명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8), “무역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에 관한 연구”, p.71. 재요약.

또한 무역전문인력의 질적 수급현황은 무역전문인력이 기업내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기업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는지 등 무역전문인력에 대한 기업의 만족수준에 따라 질적 수급현황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2008년 김학민, 이호형과 이흥기의 “무역인력 역량의 기대 불일치에 관한 실증 연구”에서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무역인력의 기대수준과 성과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 분석 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표 4>를 통해 살펴보면 무역인력을 신규로 채용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무역인력에 대한 기대수준과 인력을 채용한 후 나타난 성과수준에 차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무역인력 기대수준과 성과수준

기대역량	기대수준 (5점만점)	성과수준 (5점만점)	기대-성과 (5점만점)
무역실무에 대한 지식	3.20	2.69	0.51
커뮤니케이션 능력	3.79	2.92	0.87
글로벌 매너 및 네트워킹	3.51	2.88	0.63
제품/기술에 대한 지식	2.94	2.65	0.29
해외시장에 대한 이해	3.19	2.78	0.41
갈등조정 능력	3.26	2.77	0.49
외국어 능력	3.93	3.05	0.88
정보화 능력	3.86	3.26	0.60
리더십	3.86	2.87	0.49
평균	3.60	3.09	0.51

자료: 김학민, 이호형, 이흥기(2008), “무역인력 역량의 기대 불일치에 관한 실증 연구,” 「무역학회지」, 33(5), 11.

특히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외국어 능력 등은 매우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매너 및 네트워킹, 정보화 능력과 갈등 조정 능력, 리더십 능력도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무역인력이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원인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역인력을 양성하는 대학기관의 무역학 교육 커리큘럼의 구성 등 교육의 내용적

인 측면에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김학민, 이호형과 이흥기 2008).

4. 무역인력 양성현황

무역인력 양성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교육내용이 시대적 요구와 합치되는지를 확인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대학부문, 민간부문, 정부부문으로 구분하여 무역전문 인력양성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라공우 2011).

4.1 대학부문의 무역전문인력 양성 현황

대학부문의 무역전문인력 양성은 1990년대 후반 시작된 학부제의 영향으로 다양한 명칭을 가진 무역관련 학과에서 무역관련 교과과정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의 무역학과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지만 무역관련 학과로 구분될 수 있는 학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과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국내 대학의 무역관련 학과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07개 대학 가운데 무역관련 전공 또는 학과가 개설된 대학 수는 93개로서 44.9%를 차지한다. 무역관련 학과의 명칭은 무역학전공 또는 무역학과 이외에도 국제통상학과 및 전공, 경제무역학부, 경영무역학부, 경제학부, 경영학부, 국제통상상부 등으로 다양하다(한은식 2010).

또한 국내 대학의 무역전문인력 교과과정을 2009년 지경부에서 실시한 오원석, 양재호와 박세훈의 보고서에 의하면 무역분야 개설과목은 무역실무, 전자무역, 이론 및 정책, 기초교양 등 23개 과목으로 36.5%, 국제경영분야 개설과목은 경영, 통상 등 12개 과목으로 19%, 국제경제분야 개설과목은 경제·금융·외환

등 14개 과목으로 22.2%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실무 과목의 비중이 전체 교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며, 경제이론 및 국제경영 관련 교과목의 개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오원석, 양재호와 박세훈 2009).

또한 변화하고 있는 무역환경에 발맞추어 전자무역 및 컴퓨터 관련 교과목 등이 개설되고, 외국어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무역거래에서 중점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외국어 영역에 대한 교과목의 개설이 증가하고 있다(오원석, 양재호와 박세훈 2009).

4.2 민간부문의 무역전문인력 양성 현황

민간부문의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에 있어서 대표적인 무역전문인력 교육기관에는 한국무역협회(KITA)의 무역아카데미가 있다. 무역아카데미는 1965년 정부의 수출진흥시책에 따라 수출학교로 시작하였다. 지난 40년 동안 20여만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하였으며, 현재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무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무역실무·국제마케팅·외환금융·Biz외국어 등4대 부문의 단기연수를 비롯하여, 무역 및 IT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기과정인 ‘무역마스터과정’ 및 ‘IT마스터과정’, CEO를 위한 최고경영자과정인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GLP)과 ‘글로벌 물류비즈니스 최고경영자과정’(GLMP) 등

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정부와의 공동사업으로 해외현지연수를 위주로 한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과, 전국 대학에서 실제 무역실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TI(Trade Incubator)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오프라인 교육과 병행하여 온라인 교육을 위한 'Cyber Trade Campus'도 운영하고 있다. 무역아카데미의 교육은 수출입 무역실무, 운송실무, 관세리스크관리, 원산지제도, 국제무역사자격증관련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¹⁾.

그 중에서 무역마스터 과정은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에서 직접 운영하는 과정으로 전공과는 무관하게 대졸 이상의 미취업자 또는 실업자 및 대학생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무역실무, 국제금융 전략, 해외마케팅, 외국어,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9개월 동안 총 1,800시간의 강도 높은 집중교육을 통해서 무역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전천후 무역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다. 주요 교육과정 내용은 1) 무역실무, 국제금융 및 해외마케팅 교육, 2) 실전 비즈니스 외국어 교육, 3) 전자무역의 확산추세를 반영하고 정보화교육, 4) 국내 저명인사들을 초청하여 무역인의 기본자세, 매너, 직장예절 등 전문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가치관과 교양수준을 배가시키고 실천의지 강화를 위하여 해병대 입소훈련을 실시하고, 물류기지 현장방문, 해외 전시회 참관 등 수출입현

장에 대한 직접 방문을 통해서 현장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교육을 실시, 5) 실질적인 해외마케팅 능력 재고를 위해서 IBI(International Business Incubator)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자질 및 실력증진을 도모하고 있다.²⁾

4.3 정부의 무역전문인력 양성 현황

정부에서 실시하는 무역전문인력양성 사업으로는 지식경제부의 글로벌 무역전문가 해외인턴십 장기과정과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무역서포터즈 사업 등이 있다.

첫째, 글로벌 무역전문가 해외인턴십 과정은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무역협회가 시행해 오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을 선발하여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에서 무역실무과정을 교육 시킨 후 우리나라의 교육국 가운데 규모가 큰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은 물론 러시아, 카자흐스탄, 인도, 베트남, 터키, 브라질 등 신흥시장을 포함한 세계 각지로 인력을 파견해 연수를 실시한다.³⁾ 2010년 7월 현재 제4기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장기과정과 단기과정으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다. 장기 과정은 국내 사전교육 1개월과 해외 인턴십 6개월, 총 7개월 과정으로 구

1) http://www.kita.net/tams/sub01/list.jsp?course_type=CO1

2)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마스터과정(<http://master.tradecampus.com/>)

3)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http://www.tradecampus.com/>)

성되어 있으며 단기과정은 글로벌 무역 전문가 양성사업(GTEP)이다.

GTEP(Global Trade Expert Incubating Program)은 지식경제부가 후원하고 한국 무역협회가 진행하는 차세대 무역전문인 양성 프로젝트이다. GTEP은 무역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출을 통해 무역의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상은 2~3학년 대학생이고 2개년 계획에 따라 무역실무와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비즈니스 영어와 무역서식 및 용어에 대한 교육을 함께 실시한다. 전체 18개월 동안 총 700시간의 교육을 진행한다.⁴⁾

다음으로 무역서포터즈 사업은 2009년 서울특별시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무역전문인력 양성제도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어학실력을 가진 젊은 인력을 서울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수출중소기업에 배치하여 중소기업에게 해외마케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게 하는 제도이다. 200명 내외로 선발하며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수출실적은 없으나 수출을 준비 중인 서울소재 중소기업에서 6개월간 근무한다. 선발이 되면 3주 동안의 무역실무 교육을 받은 후 신청기업에 파견되며, 해외마케팅 지원업무 수출입 관련 문서작성 및 통번역 업무를 지원한다.

그 외에 KOTRA아카데미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무역·투자 분야 노하우

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연수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마케팅과정, 투자유치 전문가과정, 국제비즈니스전문가과정, 맞춤형위탁교육을 운영하고 있다⁵⁾.

또한 한국물류협회의 교육프로그램은 3가지로 나누어 교육하고 있다. 첫 번째는 기본교육으로 물류기초교육, 물류담당자를 위한 실무교육, 물류관리사 및 물류컨설턴트 육성교육 등이며, 그다음은 테마교육으로 물류리더십, 마케팅, 6시그마, 정책 등의 교육이 주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온라인교육을 통해 물류관련 각종 자격증대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⁶⁾.

한국물류관리사협회는 물류관리사들의 권익신장과 물류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물류관리사를 양성하는 단체이다. 여기에서는 물류관련 전문 교육 및 소양교육 등이 있으며⁷⁾, 한국관세사회는 18개의 전국지부에서 1,100여명이 개인이나 법인의 형태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관세사회에서는 관세사 보수교육을 연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예전처럼 관세사무보조원양성교육은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부마다 필요인력을 충원할 때에는 관련학과(무역과 등)졸업생이나 졸업예정자를 채용하여 직무교육을 사무소 별로 실시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4) GTEP 홈페이지(<http://www.gtep.or.kr>) 참고

5) http://www.kotra.or.kr/wps/portal/dk/kcxml/04_Sj9SPykssy0xP

6) http://www.kola.or.kr/edu/edu06.php?edu_category=17

7) <http://www.kclca.or.kr/edu/edu03.html?subMenu=3>

4.4 무역전문인력 양성의 시사점

국내 대학의 무역전문인력 교과과정을 보면 무역분야 개설과목은 무역실무 과목의 비중이 전체 교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며, 경제이론 및 국제경영 관련 교과목의 개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변화하고 있는 무역환경에 발맞추어 전자무역 및 컴퓨터 관련 교과목 등이 개설되고, 외국어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무역거래에서 중점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외국어 영역에 대한 교과목의 개설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 부문의 인력양성과정은 대부분이 프로젝트성 인력양성이며, 이 인력양성은 국고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교육내용적인 면에서는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만, 프로젝트성 인력양성의 한계는 계속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그 프로그램이 중지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학교과정과 민간, 정부부분의

사업내용을 적정히 장점을 취합하여 교과과정의 편성 및 운영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Ⅲ. 무역관련업체 고용실태조사

1. 조사의 설계 및 기업특성

인천지역 기업체(무역업, 물류업, 관세사업 등)의 인력채용 실태분석을 위해 모집단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무역 및 제조업체는 2008년 5월 기준으로 한국무역협회에 등록된 인천시에 사무소를 둔 사업체 1,086개 업체, 관세사업은 한국관세사회 인천지부, 부평지부, 공항세관지부의 약 380여 업체, 물류관련업은 한국항만물류협회회원사 30개사, 한국관세물류협회인천지회 590여개사, 일반 물류업체 약100여개사를 대상으로 했다.⁸⁾

각 업종별 조사표본수는 임의할당 추출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표 5>와 같이 1,000개사로 하였다.

<표 5> 조사표본수 (n=1,000)

	항목	표본수	백분율
업종구분	무역/제조업	600	60
	관세사업	200	20
	물류관련업	200	20
합계		1,000	100

8) 본 실태조사는 라공우의 3인, 2008년 경인지방노동청 “인천지역 무역관련업 고용실태조사를 통한 고용 창출방안연구”의 일부자료를 재인용함.

우편발송 및 면접을 통한 인천 지역 무역업체, 관세사업 및 물류관련업체를 대상으로 1000부 발송하였으며 이 중 330부가 회수 되었으며, 이중 관세사업의 회수율이 높은 것은 관세사회와 협약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중 답안에 충실하지 못한 설문조사지 11부를 제외한 총 319개의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업종의 구분은 무역/제조업이 187개로 58.6%이었으며, 관세사업체는 101개로 31.6%이었고 마지막으로 물류관련업체는 31개로 9.7%이었다. 업체 주소지는 중구 및 기타 지역이 32.5%로 가장 많았으며, 서구/강화 및 계양구 부평구 순으로 많았다. 주로 중소기업 및 제조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공단지역에서 응답된 것으로 보인다.

<표 6> 기업체 일반적 특성 (N=319)

	항목	빈도	백분율
업종구분	무역/제조업	187	58.6
	관세사업	101	31.6
	물류관련업	31	9.7
업체주소지	계양/부평	79	24.8
	서구/강화	83	26.2
	남동구/동구	53	16.5
	중구/기타	104	32.5
응답부서	인사/총무/경리	104	32.5
	행정/지원	63	20.0
	영업	32	10.0
	무역/수입/관	104	32.5
	기술부	16	5.0
응답자직위	사원/대리/관세사	97	30.4
	계장/과장	43	13.4
	차장/팀장	78	24.5
	지사 및 본부장/대표	101	31.7
연간 매출액	5억 이하	56	17.5
	5억 이상~10억 미만	64	20.0
	10억 이상~50억 미만	91	28.7
	50억 이상~100억 미만	28	8.8
	100억 이상	80	25.0

2. 인력부족 현황 및 대책

인력 부족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응답지 내용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던 6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2.1 직종별 부족 현황 및 확보 애로 요인

결과, 사무·관리직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기업체는 21개 업체로 32.8%에 해당되었으며 기술직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5개 업체로 23.4%에 해당되었다. 이외에 기능직, 단순·노무직 그리고 전문가, 판매직 순으로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7> 직종별 부족현황(N=64)

직종	빈도	백분율
사무·관리직	21	32.8%
전문가	3	0.5%
기술직	15	23.4%
기능직	12	18.7%
단순·노무직	9	14.1%
서비스직	0	0%
판매직	3	0.5%

인력 확보가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의식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4개 업체로 21.7%에 해당되었으며 임금조건이 맞지

않아서 라고 응답한 경우는 11개 업체로 17.4%에 해당되었다. 또한 인력에 대한 정보 부족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10개 업체로 15.2%에 해당되었다.

<표 8> 인력확보 애로요인(N=64)

애로요인	빈도	백분율
인력에 대한 정보부족	10	15.2%
국내에 해당인력이 없어서	8	13.0%
중소기업 근무기피 의식	14	21.7%
임금조건이 맞지 않아서	11	17.4%
작업환경 열악	6	8.7%
회사소재지의 지역여건	3	4.3%
기타	13	19.7%

2.2 인력부족 현상 극복 대책

인력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적인 노력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여성인력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

는 100개 업체로 31.3%에 해당되었다. 또한 생산설비의 자동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78개 업체로 24.5%에 해당되었다. 이외에 생산 공장의 해외 이전이나 병역대체 복무요원 활용 등에

대한 대책에는 전혀 동의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근래의 무역환경 변화 및 금리불안정 상태를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성 인력이 더 이

상 대체적인 인력이 아닌 적극적이며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인력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인력부족 현상 극복 대책(N=319)

극복 대책	빈도	백분율
생산공장의 해외이전	0	0%
생산설비의 자동화 추진	78	24.5%
사업전환 모색	32	9.9%
외국인 인력활용 확대	38	12.0%
여성 인력활용 확대	100	31.3%
병역 대체복무요원 활용	0	0%
기타	71	22.3%

3. 교육 훈련 현황

3.1 신규인력 채용 시 고려요인

신규 인력 채용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실무경험이 가장 중

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52개 업체로 47.9%에 해당되었으며 인성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15개로 36.2%에 해당되었다. 이외 관련 분야 교육 및 훈련이 수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27개로 8.5%의 업체가 고려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10> 신규 채용 시 고려요인(N=319)

고려요인	빈도	백분율
실무경험	152	47.9%
학력	14	4.3%
관련분야 자격증	7	2.1%
관련 분야 교육, 훈련 이수	27	8.5%
인성	115	36.2%
기타	4	1.4%

4. 인력 채용

4.1 종업원 채용 시 주요 고려요인

인력 채용 시 주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을 질문한 결과, 개인 인성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85.9%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점수 역시 4.21점(5점만점)으로 가장

높았다. 두 번째 주요 고려요인은 대인관계능력으로 꼽았으며 81%가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응답하였다. 평균점수는 4.03점(5점만점)으로 매우 높은 점수였다. 세 번째 요인은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한다고 하였으며 평균점수는 3.97점이었다. 주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요인으로는 출신대학과 개인 인맥을 꼽았다.

<표 11> 인력채용 시 주요 고려 요인(N=319)

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Mean (SD)
학력	6 (1.9%)	36 (11.7%)	149 (46.7%)	115 (36.1%)	3 (0.9%)	3.23 (0.74)
채용시험성적	32 (11.8%)	44 (16.2%)	98 (36.2%)	94 (34.7%)	3 (0.9%)	2.97 (1.01)
어학능력	22 (7.6%)	35 (12.2%)	131 (45.5%)	81 (28.1%)	19 (6.6%)	3.13 (0.97)
자격증 소지	21 (6.8%)	43 (20.6%)	128 (41.3%)	103 (33.2%)	15 (4.9%)	3.16 (0.97)
출신대학	37 (12.5%)	76 (25.7%)	153 (51.7%)	30 (10.1%)	0 (0%)	2.59 (0.83)
전공분야	15 (5.1%)	43 (14.7%)	94 (32.1%)	127 (43.3%)	14 (4.8%)	3.28 (0.94)
업무수행능력	9 (2.8%)	10 (3.2%)	40 (12.7%)	183 (57.9%)	74 (23.4%)	3.97 (0.87)
학과추천	31 (11.5%)	65 (24.1%)	116 (43.0%)	52 (19.3%)	6 (2.2%)	2.76 (0.96)
개인인맥	41 (15.1%)	74 (27.3%)	114 (49.3%)	36 (35.6%)	6 (2.2%)	2.60 (0.97)
개인인성	3 (1.0%)	0 (0%)	39 (12.2%)	147 (49.3%)	109 (36.6%)	4.21 (0.75)
대인관계능력	6 (1.9%)	9 (2.9%)	44 (14.2%)	166 (53.5%)	85 (27.5%)	4.03 (0.86)
외모	19 (6.3%)	72 (23.8%)	174 (57.6%)	28 (9.3%)	9 (3.0%)	2.79 (0.81)

5. 기업의 맞춤형 인력양성

5.1 학교 이론교육의 실무 응용 정도

학교 이론교육이 실무응용에 어느 정

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53.2%가 조금 응용하는 것 같다고 응답하였으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같다고 응답한 경우는 34.0% 이었다.

<표 12> 학교 이론교육의 실무 응용 정도(N=319)

항 목	빈도	백분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같다	108	34.0%
조금 응용하는 것 같다	170	53.2%
이론에 바탕을 둔 실무능력이 있다	41	12.9%

5.2 무역업무 처리 시 밀접 기관

무역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가장 밀접한 기관은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해 45.7%

가 선박회사 또는 운송업체라고 응답하였으며 행정기관은 26.2%가 밀접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13> 무역업무 처리 시 밀접기관(N=319)

기 관	빈도	백분율
행정기관	84	26.2%
외국환은행	37	11.5%
선박회사 또는 운송업체	146	45.7%
다른 기업체	52	16.6%

5.3 무역과 교과목 중요 정도

무역과 교과목 중 가장 중요한 과목이 무엇인지 순위를 매겨보도록 하였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한 첫 번째 교과목은 “수입절차 실무”로 46.9%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두 번째 중요한 교과목

은 “관세 실무”이었으며, 세 번째 중요한 교과목은 “전자무역/EDI실무”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네 번째 중요한 교과목은 “해상운송실무(물류운송)”로 꼽혔다. 다섯 번째 중요한 교과목은 “해상보험실무”라고 응답하고 있다.

<표 14> 무역과 교과목 중요도 1순위(N=319)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수입절차 실무	150	46.9%	90	28.2%	33	14.5%	27	8.5%
외국환 실무	14	4.4%	29	9.1%	21	6.5%	34	10.6%
신용장 실무	62	19.4%	23	7.3%	55	17.2%	29	9.2%
관세 실무	57	18.0%	86	26.8%	65	20.4%	48	14.9%
전자무역 / EDI 실무	14	4.4%	61	19.1%	67	21.0%	36	11.3%
해상보험 실무	3	1.0%	4	1.4%	15	4.8%	0	0%
해상운송 실무(물류운송)	11	3.4%	22	6.8%	24	7.5%	118	36.9%
기타(수출지원금융, 클레임 등)	8	2.4%	4	1.4%	26	8.1%	27	8.5%

5.4 무역실무 교과내용의 중요도

무역실무 교과 내용 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은 “무역관련 법규에 대한 내

용”이 중요하다고 응답(3.85점, 5점 만점)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무역환경변화에 대한 내용”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15> 무역실무 교과내용의 중요도(N=319)

항목	매우 중요함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매우중요하지 않음	Mean (SD)
무역관련 법규에 대한 내용	59 (18.5%)	157 (49.3%)	100 (31.2%)	3 (1.0%)	0 (0%)	3.85 (0.72)
전자무역 관련실무	42 (13.2%)	156 (49.0%)	105 (33.0%)	16 (4.9%)	0 (0.0%)	3.70 (0.75)
최신경영관리에 대한 내용	10 (3.2%)	92 (28.8%)	174 (54.7%)	33 (10.2%)	10 (3.2%)	3.19 (0.78)
물류운송시스템에 대한 내용	42 (13.2%)	135 (42.2%)	129 (40.4%)	13 (4.2%)	0 (0%)	3.64 (0.76)
외환실무에 대한 내용	42 (13.3%)	140 (43.9%)	122 (38.2%)	15 (4.6%)	0 (0%)	3.66 (0.76)
무역환경변화에 대한 내용	58 (18.2%)	139 (43.5%)	104 (32.6%)	18 (5.6%)	0 (0%)	3.74 (0.82)

5.5 경상계열 학과에서의 무역실무 교과목의 필요성

경상계열 학과에서 무역실무 교과목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59.3%이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2%정도로 적은 응답자만이 응답하였다.

<표 16> 무역실무 교과목의 필요성(N=319)

항목	빈도	백분율
매우 중요하다	106	33.2%
중요하다	83	26.1%
보통이다	92	28.8%
중요하지 않다	0	0%
필요하지 않다	6	2.0%

IV. 고용창출을 위한 무역관련 인력 양성 방안

1. 인력수급 미스매치의 해소

설문조사에서도 인력채용시 실무경험과 개인의 인성을 가장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역관련 교과목에서도 수출입실무, 관세실무 등 현장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인력을 원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무역관련업은 중소기업의 전문

무역업, 관세사업, 포워딩업체 등이 많이 있다. 따라서 대졸자들이 무역 관련업이라고 하면 종합무역상사나 해운회사, 대형관세사법인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하의 무역관련업에 입사하면 기대임금과 현실임금의 차이⁹⁾를 느낄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진학률의 급격한 증가로 고학력 인력의 공급 대폭 확대¹⁰⁾되고, 인력공급은 확대되었지만 전공과 취업의 일치도

9) 한국노동연구원 2004년 10월 전국 대학, 전문대, 실업·인문계 고교 졸업자와 졸업예정자 5,3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년층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 졸업예정자들의 희망임금은 4년제 대학이 2,095만원, 전문대가1,858만원, 실업계 고등학교가 1,919만원인데 반해, 반면 현실임금은 경총의 「2004년 임금조정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임금이 대졸은1,783만원, 전문대졸이 1,546만원, 고졸이하가 1,332만원으로 이수치는 대기업, 중소기업을 망라한 금액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만의 초임금은 이보다 상당 수준 이하였음.

10) 1980년 27.2%에 불과했던 대학진학률은 2005년에는 82.1%로 미국의 63.3%, 일본의 49.1%를 크게 앞지르며 대학교육의 양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의 진학률이 1980년 11.4%에서 2005년에는 67.6%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취업률은 33%에 머물러 기능 인력의 공급이 크게 감소함을 반영하고 있다.

는 매우 낮은 편이며, 공급되는 인력에 대한 기업 측의 만족도도 매우 낮은 편으로 숙련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업체에서는 보상체계의 개편을 통한 근로자의 생애임금수준을 제고하여야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로서의 생애임금이 대기업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유망한 중소기업의 선택 + 성과에 따른 보상>이라는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2. 맞춤형 인력양성

2.1 인력양성의 기본 방향

무역관련 인력양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역은 국제무역환경변화추세와 더불어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핵심 성장주도 산업이다. 노동부와 지식경제부가 계획수립의 주체가 되어 단기 및 중·장기적 정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계획의 내용은 분야별/수준별 전문 인력현황, 물류산업 시장분석, 향후 무역인력 수급전망, 소요예산의 산출 및 각종 전문기능 인력의 확보방안 등이며, 이를 위해 일정 주기별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실에 맞는 교육내용과 교수자의 능력향상이 필요하며, 향후 무역관련 산업은 물류, 통관, 창고, 항만 등과 관련된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이는 정보화 및 운영시스템에 관한 다양한 기술적 소

양이 갖추어져야 한다.

각종 무역관련 분야에 대한 커리큘럼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은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급변하는 무역관련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정보습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현장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역관련업(무역일반, 물류, 관세통관업)의 맞춤형 인력양성의 기본방향은 “교육과정 이수=취업”이라는 구조식이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식하에 지역의 실업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각종 협회의 연간 고용수요를 추정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한다면 협회와의 맞춤형 교육과정으로서 WIN-WIN 할 수 있을 것이다.

2.2 무역학 교과과정의 개선방안

21세기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무역학 관련 교과과정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을 고려하여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학부제 이후 무역관련 학과들의 명칭을 대학들의 이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상호 유사한 교과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면서도 학과명칭을 달리하고 있어 무역학과에 대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학과명칭에 적합한 교과목을 개설하여 각 대학마다 특성화

된 분야의 교과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최근 전자무역의 등장으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전자무역과 관련한 교과목을 상당부분 신설하였다. 이러한 전자무역에 관한 관심은 거래 중심에 있어서 전자무역뿐 만아니라 전자무역은 전자무역에 따른 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교과과정도 개설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전자무역에 따른 분쟁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의 양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3 기업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국제무역환경이 글로벌화, 지역화, 전자무역의 확산 및 무역패턴의 변화 등으로 무역인력의 역량도 과거처럼 단순 업무 중심의 1차적인 무역실무 능력에서 외국어 능력, IT기술 활용, 기술발전에 대한 높은 이해력 등 무역인력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보다 다양화 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학의 교육과정은 여전히 이론 중심, 전통적인 무역실무 중심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인력의 실수요자인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 무역인력 양성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체계 수립은 물론 대학구성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구성원(무역학과 교수 중심)이 산업계의 요구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의 수립을 통해 보다 능동적인 대학 교과과정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공우 2011).

또한 이와 더불어 교육방식도 과거 교재를 활용한 강의실 중심의 교육이 아닌 산업계의 요구에 부합되기 위하여 현장 중심의 실습교육의 강화도 병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V. 결론

무역의 중요성은 우리나라에서 1952년 정식학과로 개설된 이래 경제성장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해온 학문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WTO출범과 FTA확산으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무역학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무역환경변화에 적합한 무역인력양성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학부제 실시 이후 무역학은 이 같이 무역의 필요성에 의해 출범하였으면서도 무역학 분야의 학문체계의 미비로 무역학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에서의 교과과정도 사회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교육 등으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지고 있다는 자성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주로 무역인력양성과 관련된 연구와 인천지역 무역업체를 표본으

로 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무역인력과 무역관련 교과목의 교육과정을 재설계를 한다는데 주안점을 주었다.

이를 통해 첫째, 무역관련업의 맞춤형 인력양성의 기본방향은 “교육과정 이수 = 취업”이라는 구조식이어야 하며, 이러한 구조식하에 지역의 실업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각종 협회의 연간 고용수요를 추정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한다면 협회와의 맞춤형 교육과정으로서 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둘째, 대학에서 무역인력 양성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체계 수립은 물론 대학구성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구성원(무역학과 교수 중심)이 산업계의 요구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의 수립을 통해 보다 능동적인 대학 교과과정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반증하듯 무역 교과목 중 가장 중요한 과목이 무엇인지 순위는 수출입절차 실무, 관세 실무, 전자무역/EDI실무, 해상운송 실무(물류운송), 해상보험실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더불어 교육방식도 과거 교재를 활용한 강의실 중심의 교육이 아닌 산업계의 요구에 부합되기 위하여 현장 중심의 실습교육의 강화도 병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최근 전자무역의 등장으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전자무역과 관련한 교과

목을 상당부분 신설하였다. 이러한 전자무역에 관한 관심은 거래 중심에 있어서 전자무역뿐 만아니라 전자무역은 전자무역에 따른 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교과과정도 개설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전자무역에 따른 분쟁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의 양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최초투고일: 2011년 10월 2일>

<수 정 일: 2011년 11월 13일>

<게재확정일: 2011년 11월 17일>

참 고 문 헌

- 김원배(1999), “학부제실시에 따른 무역학과의 진로,” 「국제무역연구」, 5(1), 1-2.
- 김학민, 이호형, 이흥기(2008), “무역인력역량의 기대 불일치에 관한 실증연구,” 「무역학회지」, 33(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8), 「무역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에 관한 연구」, 71.
- 라공우(2011), “무역학교육과정과 학문분류의 재정립을 위한 연구,” 「한국무역학회지」, 36(1), 251-252.
- 박광서, 유광현(2008), “글로벌 무역인력양성을 위한 합리적인 무역학 교과과정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지」, 37.
- 오원석, 양정호, 박세훈(2009), 「무역전문인력 양성 선진화방안에 관한 연구」, 지식경제부, 26.
- 윤충원(2004), “무역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한 대학교육의 문제점 대처방안,” 「무역학회지」, 29(3).
- 조현수, 김기홍(2009), “글로벌 무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e-비즈니스연구」, 10(2).
-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http://www.tradecampus.com/>)
-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마스터과정
(<http://master.tradecampus.com/>)
- 한은식, 박광서(2010), “글로벌 무역환경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대학의 선진형 무역전문인력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지」, 47.
- http://www.kola.or.kr/edu/edu06.php?edu_category=17
- http://www.kotra.or.kr/wps/portal/dk/kcxml/04_Sj9SPykssy0xP
- http://www.kita.net/tams/sub01/list.jsp?course_type=CO1
- GTEP 홈페이지(<http://www.gtep.or.kr>) 참고
- <http://www.kclca.or.kr/edu/edu03.html?subMenu=3>